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It's JEJU
제주마씸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6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음력 3월 30일)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표류'

하수도법 준용 건축허가 방향 설정 후 '스톱'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건축 불허 철회
제주도, 어제 예정 도시계획TF 3차회의 연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표고 300m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재검토를 위한 TF'를 꾸리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해 부결 처리했다.

이후 '도시계획 TF'는 지난달 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하수처리구역 외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건축을 허용하는 '하수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 방향을 잡았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18일 '도시계획TF'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3차 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완한후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6월쯤에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9월)에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 지연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 A씨는 "부모님이 살던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수개월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처리 지연 시 도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것을 행정은 알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는 현재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는 도내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 포화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제주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하지 못한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배출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TF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마늘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마늘생산비 보장과 제주농업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수급조절용 마늘 수매와 제주도에 미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국기자

마늘 수급불안에 애타는 농심

올해 수매가 kg당 3200원… 최고가 작년 比 1200원↓
4월 저온·이달초 집중호우로 작황 부진·처리난 심각

올해 제주산 마늘가격 전망이 좋지 않고, 수급 불안이 심각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농가들이 정부에 수급조절용 마늘 3만t 수매와 제주도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농협과 계약재배한 마늘 수매가도 처음 결정됐는데 역대 최고가였던 작년보다 kg당 1000원 이상 낮아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들의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대정농협은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올해 농가와 계약재배(4348t)한 마늘 수매가를 kg당(상품) 32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최고가였던 작년(4400원)보다 1200원 낮은 가격이다.

최근 몇년동안 도내 마늘 수매가는 2018년과 2019년 kg당 각 3000원, 2020년 2300원, 2021년 3500원, 2022년 4400원이었다.

마늘 경영비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올라 농약·비료값은 물론 인건비도 코로나 이전 8만~9만원에서 올해는 12만~13만원으로 뛰었다.

도내 최대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이 수매가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농협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수매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개 지역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은 총 7236t이다.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은 "마늘 가격이 좋았던 작년에는 계약재배 마늘 수매 전부터 주문이 들어와 수매하는 즉시 육지 중간상인에게 모두 판매했는데, 올해는 구입하겠다는 상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밭떼기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재배 물량 외 잔여 물량도 모두 농협에서 사들여 판매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1242ha로 작년 대비 1.4% 감소했다. 생산량은 당초 1만8977t로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구비대기인 4월 하순 저온현상과 5월 초 집중호우 탓에 상품성이 떨어져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밭떼기거래는 3.3㎡에 1만5000원 안팎에 극히 일부만 이뤄져 미계약재배 농가들은 판로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같은 마늘 수급 불안에 마늘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마늘생산비 보장과 제주농업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수급조절용 마늘 3만t을 정부에서 즉각 수매하고, 제주도는 미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별도 수매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미숙·박소정기자

정신건강센터 보조금 횡령 법정으로… 4면 / 제주 농가부채 '전국 1위'… 6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라산 사유지 매입사업 '순조'

도, 올해 7만2000㎡ 매수… 3ha 추가 매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라산 사유지 매입 목표 면적 중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매입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며,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예산 151억5900만원을 투입, 사유지 108필지 259만8000㎡(공원 면적의 1.7%)를 매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작 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필지 86만3656㎡를 매입했다. 이는 총 매수 계획의 약 33%다.

도는 올해 매입 목표를 10만㎡로 설정했으며, 지난 4월까지 3필지 7만2518㎡를 매입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는 잔여 물량인 3ha에 대해 매입 공고에 나섰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제주도 누리집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추가 공고문'을 참고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시 1100로 2070-61)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4-710-7819)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사유지 매입사업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한라산 보호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연동365일의원
진료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6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 · 일 · 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그랜드사거리 E마트 롯데마트 신제주로터리 연동365빌딩 우편집중국 으뜸상호저축은행 대림APT 오일장신문 KCTV 연북로 신제주 부림랜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